



향기 나는 언론인



나는 어릴 적 엘리트였던 친오빠와 비교되면서 고질적인 열등감을 느끼고 자라서인지 ‘정의’와 ‘자유’를 유독 좋아하는 아이였다. 사업가 아버지와 선생님이셨던 어머니를 둔,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라나 더욱 자유를 갈망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암묵적인 압박감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오빠보다 인정받고, 살아있음을 제대로 느끼는 순간을 다름 아닌 ‘글’을 쓸 때였다.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도 글짓기상은 웬만하면 ‘최우수’였고, 논술만으로 중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방송작가가 되기로 했고, 보수적인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학기 대학등록금을 KBS 아카데미 방송작가 학원에 등록하게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 대한 도전으로 하루하루 설레었고, 현실에 대한 부푼 기대로 가득 차올랐다.

그런데 웬걸 들어가 보니, 지옥이 따로 없었다. 한 시사 프로그램의 외주제작사로 들어간 나는 밤낮없이 정말 하루를 48시간처럼 일했다. 휴무는 한 달에 한 번 쉬는 것이 고작이었고, 그것도 랜덤이었으며, 일하는 날은 출퇴근에 대한 개념이 없어질 정도로 고된 밤샘작업의 연속이었다. 컴퓨터를 너무 많이 했던 나는 손가락 관절염증과 만성 각막염에 시달렸고 밤낮 구분 없는 과로로 생체리듬의 파괴되어 백혈구감소증까지

걸려 걸핏하면 쓰러졌다. 하혈과 코피를 반복하며, 링거까지 꽂아가며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한 이유는 직업에 대한 반대가 심했던 부모님께 반드시 성공하는 모습으로 미안함을 갚고자 했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일에 대한 강도가 센 것이야 이미 아카데미에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지만, 정말 이 정도 일 줄은 몰랐다. 일이야 그렇다 쳐도 내가 정말 버틸 수 없었던 건 ‘사람’이었다. 어찌 보면 방송도 예술이기에 개성 강한 사람들이 많아 군기까지 셨다. 까칠하면서 실력 없는 선배를 만나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혼이 나야 했고, 주변 동료들과도 성격이 잘 맞지 않아 마음 둘 곳 하나 없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면서 받은 월급은 80만 원. 저축은커녕 기본생활비에도 턱없이 모자랐다. 모든 방송가가 다 그렇지는 않다. 원래 시사 쪽이 일이 고되기도 하고, 내 근무환경과 인복이 안 좋았던 듯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다니던 회사의 사정이 안 좋아져 월급이 밀리게 되었다. 이쪽 계통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라며 선배들은 한두 달 월급이 밀리는 건 아무 일도 아니란 듯 안심시켰다. 하지만 하루하루 수중의 한 푼이 급한 막내들은 사정이 달랐다. 결국, 나는 없는 시간을 쪼개어 방송 관련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투잡을 뛰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글을 써주는 일과 관련한 아르바이트의 수입은 예상외로 짭짤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들어오는 일도 다양해졌고, 입소문을 타고 나의 글 솜씨는 제법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선거라든지 여러 기관의 활동과 관련해 원하는 글이나 문구를 센스 있게 만들어주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 거기서 운 좋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나의 재주를 알아보신 그분이 정치 글과 관련한 큰일을 맡겨주셨다. 정치와 시사에 평소 관심이 많았던 나는 그 일을 훌륭히 해내며 성취감을 느꼈다.

부족한 생활비도 채우고, 나의 글 실력도 쌓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였다. 활동 영역은 넓어져 여러 방송기사를 대신 써 투고하는 일, 아는 지인들의 취업 이력서,

심지어 대입 자기소개서까지 의뢰가 들어왔다. 기사 글을 투고하는 일은 방송 프로그램 홍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인 줄 알았지만, 쉽사리 거절하기 힘들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합리화시켜, 불쌍한 박봉인 나에게 이 정도의 용돈벌이를 허용되지 않겠느냐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 했던가. 거기서 멈췄어야 했다. 시간이 흘러 대필해주는 일에 점점 욕심이 나기 시작했다. 사실 처음에는 내가 어느 정도의 글 실력이 있나 확인받고 싶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던 것 같다. 하지만 점점 생각지도 못한 후한 대접과 쏠쏠한 용돈벌이, 실력을 높이 인정해주는 칭찬들과 같은 달콤한 유혹들로 나는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급기야는 지인들의 지인들 이력서를 써주고 있었고, 나아가 짤막한 전문 기고문, 연설문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으며, 본업보다 이 일 쪽에 적성이 맞는 것 같다면 정식적인 대필제의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기업보다 훨씬 높은 대필회사의 연봉제의가 들어오면서 그제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다.

녹록치 않았던 회사의 근무환경과 빨리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다는 조바심,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는 대필이면 괜찮다는 안일한 양심이 더해져 자꾸만 쉬운 길로 발걸음이 향했다. 고된 일로 힘들었던 나의 육체는 건강한 정신마저 무너뜨리기 충분했다. 또한, 너무나도 순식간에 빨리 변해가는 내 자신에 더욱 놀랐다. 불법의 유혹에 탐닉해가는 속력은 너무 빠르고 짜릿해 나를 돌아볼 시간 따위는 절대 주지 않았다. 게다가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번 시작한 일은 멈출 수 없는, 브레이크 없는 내 모습이었다. 한때 ‘정의’와 ‘자유’를 좋아하며 진실한 언론인을 꿈꾸던 내가 맞는지 아찔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나는 진정한 언론인으로서 자질을 의심해가며 하루하루 양심의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그러던 중 프로그램 팀 자체가 재편성 되었고, 멋진 선배와 좋은

동료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으로 방송가에서 계속 오래 일하고 싶을 정도로 배울 점 많은 존경할만한 한 선배가 나타났다. 평소 후배나 선배를 챙길 때는 한없이 사려 깊고, 웃음 많고 따뜻한 분이시지만, 일 할 때만큼은 확실하고 무서울 정도의 집중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분이었다. 반전 매력과 동시에 철저한 자기관리와 타고난 품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에게도 매력적인 분은 남에게도 그럴 것이, 늘 선배 주변에는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그래서 선배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기회는 오는 법. 운이 좋게도, 금방 선배와 팀을 이뤄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매일 숙직실에서 자는 내가 안타까워 자신의 자취방을 기꺼이 내주셨고, 뜻하지 않은 2 주간의 선배와 동거를하게 됐다. 여태껏 다른 선배들은 홀로 원고 쓰는 일을 보조적으로 도와준다는 느낌이었다면, 이 선배는 막내가 혼자서 하기 어려운 자막 타이핑을 직접 시키는 등, 일하는 파트너로서 함께 호흡하고 공유하려는 느낌이었다. 처음으로 밤샘작업을 하고도 힘들지 않았고, 일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

그렇게 어김없이 밤샘 작업이 한창일 때 하던 때였다. 선배가 머리 좀 식히자면 옥상에서 캔 커피 하나를 건넸다. 새벽이어서 그랬는지, 감성이 충만해진 선배는 처음으로 일이 아닌 소싯적 기자였던 사담을 풀어 놓기 시작했다.

“방송작가 하다가 잠깐 신문기자 제의가 들어와서 그쪽으로 빠진 적이 있었어. 생각보다 기자생활은 수직적이고, 보수적이더라고. 나의 의견과 생각은커녕, 이미 지시가 내려진 글을 수정해가는 일이 태반이었어. 그렇게 기자생활에 회의감이 들던 중 상사한테 기업을 컨설팅을 도와주는 일을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지. 하지만 나는 어려서 몰랐지. 그 컨설팅이 리베이트일 줄은.”

“...”

“결국, 일 못해 먹겠다고 사직서 던지고 당당히 내 발로 나오는데 얼마나 뿌듯하던지. 내

인생에서 제일 통쾌한 순간이기도 했고. 그냥 스스로가 멋져 보였어. 내가 봤을 땐 너 방송작가로서 충분히 재능 있어. 너도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전문인으로서 술한 제의들과 별의별 일을 겪게 될 거야. 이렇듯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순간은 정말 찰나야. 몇 분도 아니고 몇 초. 이러한 제안은 너도 모르게 안에 있던 품성과 인성으로 결정 나버리기 십상이지. 그러니 진짜 언론인다운 언론이 되고 싶으면 진실한 마음과 올곧은 양심부터 기를 줄 알아야 해.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선배.”

남다른 선배라 생각했지만, 나의 고민까지 해결해줄 줄이야. 그 이후는 과감히 일을 그만두었다. 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약한 체력을 단련시키고, 건강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언론에 대해 공부를 더 하고 싶어 유학을 결정했다.

생각해 보면, 2년 동안 시사 프로그램 작가로 있으면서, 술하고 다양한 부정에 빠진 사연들을 접했다. 몇 달 동안 대기업 관련 취재를 힘들게 완성했지만, 엠바고가 터지면서 엎어지기도 했고, 비리 많은 기업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추석에도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 인터뷰를 했다. 또한,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밑바닥의 어두운 세계를 보았고, 부정부패와 관련한 일은 생각보다 우리와 가깝게 작용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그러한 사실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실현’에 대한 남다른 가치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사람은 언제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것. 나는 이것을 언론인의 진정한 ‘청렴’이라 본다.

예전에 성당 신부님께서 하신 강론 말씀이 떠오른다. ‘썩은 음식은 먹지 못하지만, 삭은 음식은 깊은 맛을 내죠. 비슷한 것 같아도 발효와 부패는 천지 차이예요. 태만으로 썩은 냄새가 나는 부패인생이 아니라 향기 나는 발효인생을 사십시오.’ 언론인으로서 나의 인생은 아직 발효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의 양심은 살아있다. 고로, 난 꼭 다시 향기

나는 언론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또, 하루를 일생처럼 산다는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흘러 순간이 평생이 되지 않도록. 향기롭게 발효하고 싶다. **청렴 세상**